

창 6:17-22 액체인 물이 백도가 되면 끓어서 기체가 되고, 영도가 되면 얼어서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액체인 물이 왜 이렇게 단단한 고체가 되었지?' 물으면, '영도 이하라 물이 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답이 됩니다. 그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학만 해도, 그렇게 물질처럼 답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쁠 때 사람들이 웃지만, 너무 기쁘면 눈물이 주루루 흐르기도 하잖습니까? 그 눈물 받아서 몇 % 염화나트륨이 포함된 물이라고 하면, 어떤 기쁨인지 답이 됩니까? '시간의 간략한 역사'란 책에서 스티븐 호킹은, 우주를 아주 간단히 설명해 버립니다. 그렇게 우주를 꿰는 천재 물리학자가 아내 마음 하나 모르니까, 거둬 이혼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 홍수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들면, 이상한 얘기가 되고 맙니다. 아직 노아 홍수나 방주를 입증할만한, 고고학적 발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눈물의 의미를 물질 성분 분석으로 알 수 없듯이, 노아 홍수 사건은 거기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컸고, 방주가 닿았던 아라랏산은 지금 어디고, 설령 어디서 고고학자들이 방주를 통채로 발굴했대도 그 물리적 분석은, 눈물 성분을 분석해 기쁨이란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성을 무시하잔 말이 아닙니다. 지성을 하나님의 지혜에 맞추잔 말씀입니다. 창 6:17-22 함께 읽겠습니다.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며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기도)

노아 방주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당신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그런 우리가 그 분을 등질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멸하신 것처럼, 한 손으로는 악을 때리시지만, 또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다른 한 손으로는 살리신다는 메세지입니다. 분명 전세계적 규모의 홍수가 있었고, 노아와 가족들이 만든 방주에 들어가 동물들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 사실 이상으로, 홍수와 방주가 전하려는 하나님 메세지가 소중합니다.

8 절 성경에, 처음으로 ‘언약’이 나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소위 ‘노아 언약’이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성경에 아주 익숙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 언약을 맺고, 언약관계 가운데 들어 가십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관계에 있는 것같이, 든든하고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구원하실 뜻이 있고 그럴 능력도 있는 분과 언약관계에 있는 한, 누구나 언제나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가정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건,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때문입니다.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직결될 뿐 아니라, 파트너가 있습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구원받는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인 노아는, 22 절 ‘하나님 명령대로 다 준행합니다.’ 언약은 쌍방이 맺고, 서로 신의와 성실로 언약관계를 유지할 인격적 책무가 따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준행했다’는 말이 ‘아무 흠결이 없단’ 도덕적 평가가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처럼 분명 실수도 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늘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는 분명 오늘날 홍수와 다릅니다. 창세기 1 장 ‘궁창 위의 물’이 나오는 데, 그게 다 터진 겁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해선 안 되지만, 또 기록된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됩니다. 우리 지성으로 수용할 건 수용하되, 근본주의자들처럼 과학을 무시하거나, 세대주의자들처럼 과학을 끌어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없이 살려면 중요한 것이, 우리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 관점으로 나를 볼 건지, 아니면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객관화할 건지를 늘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믿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피림”이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스타였고, 누구나 선망한 존재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넘어진 자, 패역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네피림 자랑 마십시오. 하바드 간거, 구글에 취직한 거, 티비에 나온 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요동칠 게 아니라, 세상이 어찌 보느냐가 아닌, 주님이 어찌 보시느냐가 우리 지향점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듯 노아가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지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자력 구원’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럼 6:9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지 않냐 하실 분들은, 바로 앞 단락 결론인 6:8 절부터 봐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은혜가 먼저입니다. 노아 역시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아, 죄성을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관계로 부르신 은혜에, 노아가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 노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중심을 고정시킬 수 있었던 거지, 노아 행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뽑힌 게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나? 딴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냐?’ 따질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은혜로 초청받은 게,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다,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이상한 노아를 봤습니다. 자그마치 120 년이나 봤습니다. 뵈전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동안,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부름 받은 게 분명합니다. 벧전 3: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다른 사람들도 노아를 통해서나 다른 방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안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도, 그런 일 안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마 24: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는 게 나쁘거나, 시집 장가 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에 취해 영혼이 파리에 쏘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에 냉담했던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수천 수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단 경고를 듣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날 줄로 압니다. 다가올 심판이 아무리 분명한 사실이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팔벌려 환영할 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태 귀에다 대고, ‘나를 따르라’ 속삭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자리에 공개적으로 선포되었고, 그 하나님 은혜에 응답한 사람은 마태 한 사람인 겁니다. 창세기 12 장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도, 부름 받은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 하나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포된 하나님 은혜를 접했지만, 의지를 굽혀 응답한 사람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와 노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매주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부르십니다. 여기 미국 오셨으니까 교회 오지, 아쉬울 것 없는 분들이 많이 와서 설교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지는 방주를 보신 겁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서,

준비가 되면 믿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든 과거가 어떻든 실수와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은혜를 깨닫고 응답만 하면 내 집 안방이, 내 일터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구원 역사가 임한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함받은 사람에 비해 응하는 사람은 늘 턱없이 적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1 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가올 심판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들처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이 노아를 안전하게 지킵니까?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분명히 다가올 심판에서, 우리를 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애굽에서 모세를 살리려고 나일강에 띄웠던 갈대상자와 같은 단어 ‘하테바’ 입니다. 둘 다 물 위에 뜨기위해 만들지만, 방향을 control 할 키도 없고, 움직이기 위해 바람을 받을 돛이나 노도 없습니다. 배가 아니라 그냥 상자에 가깝습니다. 언약궤에 가까운 상자입니다. 아무 동력도 없고, 방향도 배에 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돛을 세우거나 노를 저은 게 아닙니다. 방주든 갈대 상자든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문 닫고, 친히 움직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방주와 갈대 상자 모두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약 파트너인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언약 파트너로 부르실 때, 그렇게 우리 의지를 굽히고, 인격으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온전히 그 분께 맡긴 채, 어디로 인도하시든 거기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 역시, 노아 덕에 구원받은 가족들처럼, 그 은총을 더불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 아라랏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 발굴 현장은, 인기있는 성지 순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 현장인지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체는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을 보면 16 절, 꼭대기 즉 지붕에서 한규빗 되는 자리에 창들을 내게 하십니다. 공기와 빛이 들어오게 낸 창문입니다. 그 말은 방주에는 세상을 보는 창문은 없고, 오직 하늘로만 뚫렸단 뜻입니다. 방주 속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1 년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하늘로 뚫린 창입니다. 그리로 신선한 공기와 빛도 들어오고, 하늘로 난 창을 통해 하나님과만 눈을 맞추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히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방주를 현대어로 풀자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거짓 정보들,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 풍문들 사이에서, 눈 똑바로 뜨고 어떤 게 생명의 정보고 어떤 게 죽음의 정보인지 가려내, 그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서 목말라 죽었지만, 지금은 정보의 홍수에 익사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정보들을 걸러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